

<2009년 7월 8일 수요말씀상고>

말씀의 불 받고 주님 심정 알고 대하라

1. 주님은 사명자를 통해 말씀하시든지,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이나 꿈이나 기도 가운데 그 심정을 급히 말씀하시는데도 듣는 자가 불같이 화끈하게 뜨겁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떤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까?

2. 계시는 받되 먼저 주님과 선생님께 확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어떤 것들을 확인 받아야 합니까?

4. 주님의 특별계시는 무엇입니까?

5. ① 주님과 ○○된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믿고 뜨겁게 감동을 받아 실천합니다.

② 주일과 수요일과 새벽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즉시 믿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보시고 “재는 내 ○○이로구나.” 하십니다.

③ 계시자들도 선생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해야 됩니다.

④ 주님은 “나의 계시를 받으라고 허락했더니 틈을 타서
○○들도 계시를 주니 철저히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⑤ 섭리사는 선생의 이름을 말하면 잘 믿기에 선생의 이름을
이용하여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속지 않으려면 꼭꼭
내게 ○○한 후에 행해야 됩니다. 선생이 허락했어도 행하면서
또 매일 ○○해야 됩니다.

⑥ 주님은 “너희들에게 ○○○기회, ○○○순간을 주었는데
도 그 시간마저 제대로 안 할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⑦ 모두 각 나라 ○○하게 지내요. 과거 잘못된 것에 매여 있
지 말고 회개한 자는 ○○으로 열심히 해요.

⑧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 없는 자는 얻지 못한다.
고로 믿음과 ○○와 ○○의 은혜를 받아라.” 하셨습니다.

⑨ 인생 살다가 생각나면 그제야 나를 찾고, 아쉬우면 찾고,
고통 당하면 찾는 신앙은 ○○를 위한 신앙이다. ○○를 중심하
고 ○○를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자들이다.

⑩ 계시의 내용이 말씀과 대조해 볼 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의 계시인지, ○○이 허락하신 계시인지가 중요합니다.

(정 답)

1. 첫째, “영이 죽었기 때문이다. 육적으로 정신이 죽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무지하여 모르기 때문이다.”

셋째, “어린아이처럼 평소에 나와 가까이 지냈으면 내 마음과 심정을 잘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에 척척 순종했겠지만, 말로만 가까이 지낸다고 하였지 실상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생 살다가 생각나면 그제야 나를 찾고, 아쉬우면 찾고, 고통당하면 찾는 신앙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다. 자기를 중심하고 자기를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자들이다.”

넷째,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밝고 깨끗하게 하지 않음으로 육적인 자가 되었기에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도 귀히 보지 않는 것이다. 즉시 듣고 확실히 믿고 실천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깨끗하지 않은 자는 나와 멀리 있는 자이며, 내 말을 전해 듣고도 감각이 예리하지 못하여 금방 세상 생각에 묶여 버린다. 고로 뜨겁게 확실하게 믿고 행하지 못한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는 얻지 못한다. 고로 믿음과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받아라.” 하셨습니다.

2. ① 한두 명이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혼잡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섭리사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② 사탄은 처음에는 안속이고 계시해 줍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속이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속이면서 별별스럽게 계시합니다. 고로 매번 확인해야 됩니다.

③ 계시도 처음에는 잘 받다가 차원이 높아지니 혼돈하면서 받기에 듣는 자들이 이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개중에는 사탄이 끼어들어 계시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옳은 계시까지도 의심 받게 됩니다.

④ 이미 말씀과 설교를 통해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 영이나 마음으로, 자기 생각과 의지로 계시를 받아도 맞는 것이 많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주신 것인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3. ① 계시를 받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확인한 후에 내보낼 것입니다.

② 단상에서 간증하는 자들과 개인들도 간증하려면 꼭 확인받고 해야 됩니다.

③ 선생에게 확인받은 것 외에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까지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④ 개인이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봐 주는 것이나, 환상을 본 것이나, 주님의 계시를 전해 주는 것 모두 하나하나 보고하고 확인받은 후에 하기 바랍니다.

⑤ 내게 계시 받은 내용을 써 보낼 때는 자기가 좋은 것만 몇 가지 적어 보내서 허락받으면 안 됩니다. 모든 내용을 다 보내야 정확하게 분별해 줄 수 있습니다.

4. 모두 하나하나 긴장하여 자기를 살피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철저하게 신경 써야 됩니다. 목자들이나 인도자들은 양만 신경 쓰지 말고, 사탄 귀신과 도적질하는 자들과 행악자들이 숨어서 엿보고 있지 않은지 하늘의 사명자들이 되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섭리사는 선생의 이름을 말하면 잘 믿기에 선생의 이름을 이용하여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속지 않으려면 꼭꼭 내게 확인한 후에 행해야 됩니다. 선생이 허락했어도 행하면서 또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도 선생의 이름으로 노략질하는 자들이 있으니 다 다스리기 바랍니다.

5. ①일체 ②심정 ③겸손 ④사탄 ⑤확인 ⑥마지막 ⑦화목, 충성 ⑧믿음, 지혜, 분별 ⑨자기 ⑩주님